

“환경 분야 유망 일자리 多 모였네!” 제18회 환경산업 新일자리 박람회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11월 24일 서울 SETEC(학여울역)에서 환경 분야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환경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환경산업 新일자리 박람회(Eco Job Fair)'를 열었다.

환경 분야의 유일한 취업박람회인 이 행사는 환경 기업과 구직자를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장으로 2010년 시작된 이후 18회째를 맞았다.

이번 박람회에는 환경 분야 취업을 원하는 청년 구직자를 위해 티에스케이워터, 케이씨코트렐, 환경관리(주)(옛 코오롱워터앤에너지), 금호건설, 포스코건설 등 80여 곳의 환경 전문 및 플랜트 기업이 참여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및 국제기구 등이 함께 참가해 새로운 환경일자리 오프라인 플랫폼을 제시했다. 환경 관련 국제기구로는 GGGI(글로벌 녹색성장 연구소)와 UNDP(유엔개발계획)가 국제기구 진출에 관심을 가진 구직자들과 상담을 진행했다.

박람회장에서는 SBA 서울新직업 인재센터와 환경분야 벤처창업·사회적기업, 업사이클기업 등이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환경 분야 일자리를 소개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2018년 공공일자리 취업을 위한 '환경분야 공공기관 채용설명회'가 함께 열려 각 기관 인사담당자와 취업 희망자들이 밀착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도 했다.

한편 이번 박람회에서는 환경부가 기술력 및 고용 실적이 우수한 환경기업 14곳을 환경 분야 국가대표로 지정하는 '2018년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서 수여식'이 개최됐다.

올해 지정기업의 전년도 평균 매출은 395억원, 고용인원은 89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업체의 환경 분야 전문기업 지정으로 환경 관련 일자리 확대가 기대된다.

2018년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된 14곳은 대일 이엔씨, 부강테크, 삼진정밀, 엔바이오니아, 엔바이오컨스, 엠에이티플러스, 인선모터스, 일신종합환경, 지티사이언, 케이씨코트렐, 케이씨환경서비스, 코웨이엔텍, 한독이엔지, 휴비스워터다.

이창흠 환경부 장관은 "환경 기업 및 기관에는 우수 환경인재를, 구직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환경 분야의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❶

